

# “무의식 분석... 전인격 치유 의문”

### 김성철 교수, 불교심리심포지엄서 심리상담 불교적 해법 강조

“무의식에 대한 치료는 대상자의 정신을 면밀히 분석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할 때 가능하다.”

정신치료와 심리상담 등의 분야에서 무의식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무의식에 대한 불교적 접근 방법을 강조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김성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9월 15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이 서울대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에서 ‘무의식에 대한 불교적 접근 방법론’을 역설했다.

김성철 교수는 발표에서 무의식에 대해 자동차에 비유하며 접근 방법의 요지를 설명했다.

“우리 앞에 멋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바라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자동차를 보는 것이고 하나는 안에서 자동차 내부와 바퀴를 보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자동차를 바라보지만 그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운전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내담자를 만나는 것과 동사심의 입장에서 함께 느끼는 것은 그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이 수면에 든 것을 ‘잠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확고부동한 표현이 아닙니다. 낮이 될 때는 잠을 자고 있지만 당시자는 꿈 속에 깨어있습니다. 불교



김성철 동국대 교수

#### 무의식통한 상담 효과 ‘의문’

심리치료에 불교 방법론 필요

사성제 수행으로 극복 가능

편한 명상 프로그램 개발해야

용어로 ‘비량(比量)’(추론)이 될 뿐인 것입니다.”

김성철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심리치료와 상담에 있어 무의식을 드러내 그 원인을 해결하려는 기존의 학방법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명석을 깔면 하던 것도 멈춘다”는 속담이 있다. 정신분석을 통해 그 속내가 발각 됐을 때 이 증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게 된다”며 “정신분석을 통해 무의식을 드러내는 일이 분석가의 지적 호기심과 학문적 적합성을 가질 수 있어도 그의 전인격이 치유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심리치료와 상담에서 불교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



9월 15일 열린 불교와 심리 심포지엄에는 200명이 넘는 대중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했다. 김 교수는 부처님 당시의 일화를 예로 들었다.

“사뭇티 성에 ‘달라갱이 고타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학대를 받던 이 여인은 아들을 낳자 대접을 받았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 죽은 아들을 등에 업고 약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다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들을 살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는 겨자씨를 구하려 온종일 돌아다녔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 고타미는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김성철 교수는 부처님이 고타미의 고타미 같은 상담이 아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성복과 같은 명상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심리치료 등에 효과적”이라며 심리치료학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과 교수의 ‘뇌과학을 통해 바라본 명상의 효과’, 조우경 서울대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의 ‘켈 웰버가 본 명상과 무의식’, 문윤식 서울대 교수의 ‘요가 명상에서 심층의식의 기능과 역할’ 등이 발표됐다.

김 교수는 고타미의 일화를 현대적 정신분석에 적용하면 고타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고 비교했다. “당신은 마르고 못생겨서 자학과 열등감에 빠졌지만 아들로 인해 칭찬을 받습니다. 이 아들이 죽자 예전처럼 조롱받고 학대받을 것이 두려워 약을 구하려 다니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행동을 멈추세요.”

김 교수는 끝으로 “정신분석이 맞습 복 같은 상담이 아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성복과 같은 명상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심리치료 등에 효과적”이라며 심리치료학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과 교수의 ‘뇌과학을 통해 바라본 명상의 효과’, 조우경 서울대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의 ‘켈 웰버가 본 명상과 무의식’, 문윤식 서울대 교수의 ‘요가 명상에서 심층의식의 기능과 역할’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명상 한 달 만 해도 뇌를 바꾼다

### 권준수 교수, 명상의 효과 역설



서구사회에서 명상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사실이 알려지며 명상 붐이 일지 오래래며 이러한 관심은 지속적인 연구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사진)는 9월 15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이 서울대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에서 명상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권 교수의 발표 중 이목을 모으는 것은 2012년 UCLA Luders 박사 등의 연구결과다. 이들은 명상이 기억저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는 30명의 명상군과 30명의 대조군에서 시행했으며 명상군은 좌·우측 해마가 모두 대조군에 비해 커진 결과를 낳았다.

권 교수는 “해마의 크기 증가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명상 시 알아차

림이나 삼매 등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명상으로 주의집중 등 정신적 상태와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과정에 일조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명상으로 인한 뇌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명상의 효과는 이미 입증된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장기간이 아닌 한 달 등 단기간의 명상으로도 뇌 백색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는 등 단기 명상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평등심 실천이 붓다와 성철의 중도”

### 조준호 교수, 성철 스님과 초기불교 중도관 비교 발표

〈백일법문〉에서 초기불교의 중도에 대해 설명한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의 중도관과 부처님 당시 초기불교의 중도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백련불교문화재단이 9월 21일 개최한 ‘성철 스님의 중도관’ 세미나에서 조준호 한국외대 교수는 초기불교의 중도와 성철 스님의 중도관을 비교 발표했다.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초기불교의 중도에 대해 ‘초전법륜의 가르침은 중도대신인(中道大宣言)’이라 표현할 만큼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중도를 꼽았다.

조준호 교수는 성철 스님의 중도에 대해 “성철 스님은 ‘견성’은 바로 ‘성불’이며, 이는 ‘중도를 깨친 것’이라고 보았다”며 “성철 스

님의 중도에 대해 ‘어느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입장으로 불교의 근본진리’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초기경전에서는 팔정도와 함께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를 비롯한 삼십칠조도품이 모두 중도로 설명된다”며 성철 스님의 중도관이 부처님 당시의 중도관에서 비롯됐음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부처는 중도의 내용으로 평등심과 청정심을 진정한 즐거움으로 설명한 것에 성철 스님은 상대적인 편견을 버렸을 때 이 즐거움이 나온다고 달리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불교의 중도는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자세”라며 “차별하지 않는 평등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붓다와 성철이 역설했던 중도의 실천이고 깨달음의 삶”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준호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호규 교수가 ‘선종의 선문답과 중도’에서 선종에서 나타나는 중도불교의 중도구조를 설명했으며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원은 ‘퇴계성철의 법어에 나타난 중도의 표현’에서 백일법문에서 중도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구조가 스님의 대중법어, 나아가 상당법문에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 보았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11월 29일 국제학술포럼 ‘불교의 명상 : 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사찰 주변 시설물 미관 정리 점검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물 디자인 지침 제정

정부가 사찰에서 사찰 본연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문화재 주변 설치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원칙 및 기준이 되는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제정했다.

문화재 공공디자인 지침은 문화재 주변 화장실, 안내판, 매표소, 휴게의자 등의 42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도록 미관을 지정한 것이다. 국가 문화재의 40% 가량이 사찰인 상황에서 매표소, 해우소, 사찰 안내판 등에 디자인적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문화재청은 공공디자인

# “한국 산지 가람의 특징은 ‘대지의 건축’”

### 김봉렬 교수, ‘한국사찰의 세계유산 가치’ 세미나서

“한국의 천년 고찰들이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건축의 진정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건물의 토대가 되는 땅의 모습을 보존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산지 가람은 ‘대지의 건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명산 고찰들의 세계유산적 가치가 초기 위치를 고수하며 변화를 도모한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사진)는 9월 22일 양산 통도사에서 ‘한국 전통사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불교의 중창불사 개념에 주목했다. ‘승유역불’의 조선시대에는 대규모 불사가 불가능했고, 긴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가람

을 변화하는 ‘중창’의 개념이 도입됐고, 이 ‘중창’의 개념이 한국 산지 가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선정된 7개 사찰들은 초기 가람의 형태를 간직한

**중창, 탄압 피하기 위한 대응  
과거 보존하며 가람에 변화**

사찰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산지 가람의 특징에 대해 김 교수는 “풍수적 자연관의 발달은 사찰이 산에 둘러싼 형국을 가지게 했다”며 “종합적 수도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했기 때문에 생활공간과 수행시설이 섞이는 건축적 관계를

인 지침에 △순응하는 디자인 △간결한 디자인 △비유는 디자인 △절제있는 디자인 △소통하는 디자인 △절서 있는 디자인의 6대 원칙과 함께 시설물의 배치, 형태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또 국가지정(등록)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에 적용하며, 시·도지정문화재와 그 외 미지정문화재의 공공디자인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김봉렬 교수 홍선 스님 김상현 교수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건축 형식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 산지 가람의 현재 모습은 긴 과거의 축적”이라며 “이는 초기의 위치를 고수하고, 대지의 모양을 바꾸지 않았기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존 허드 이코모스 자문위원장의 기초 강연과 김상현 동국대 교수, 불교중앙박물관장 홍선 스님, 고우찬 이코모스 부회장, 노부코 인드라 스쿠바데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신종일 기자

#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입종안내

## ◆ 입 종 안 내 ◆

### ※ 입종 구비서류(공통) ※

- 입종신청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증 사본1부, 증명사진 3매
  - 재정증단 수계증 사본 또는 승적확인서
  - 입종비(총무원 문의 바람.)
    - 사찰등록 희망 시 -
  - 사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간판 등) 3매
- ※ 입종관련 문의는 총무원 또는 가까운 전국교구 총무원에 하시면 됩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초대 세계법왕 일봉 서경보 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하여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큰 발원으로 일봉존자의 수법제자이시며 제)일봉선교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법담 정각 대중사님을 초대중정으로 모시고 지난 7월 24일 『창종선포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본 종의 창종에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근각지의 청정승가와 불자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열린종단·교육·수행종단·개혁과 혁신의 종단』을 표방하는 본 종단에서는 “일봉”의 큰 그늘아래 하나 되고자 하는 일봉문도와 일봉존자와 소중히 인연된 청정승가, 법사, 재가불자님들께 언제나 입종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사오니 함께하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불기2556년 8월 좋은 날

### ※ 전국교구 총무원 ※

- 경기남부교구원장 : 일성(미륵사) ☎ 011-350-5855
- 경기북부교구원장 : 지선(통일안국사) ☎ 031-876-2235
- 경북교구원장 : 해동(지장사) ☎ 054-672-6564
- 전남교구원장 : 지현(약천사) ☎ 062-266-7462
- 전북교구원장 : 성각(백룡사) ☎ 010-9516-9600
- 충청교구원장 : 상원(해천사) ☎ 044-863-5582
- 제주교구원장 : 대성(일봉총법원) ☎ 064-702-2328
- 대전교구원장 : 정원(삼성암) ☎ 042-583-1009
- 부산교구원장 : 정일(자광사) ☎ 055-342-3551
- 울산교구원장 : 지운(운지암) ☎ 052-260-4897
- 대구교구원장 : 보각(지장사) ☎ 054-482-1071

(사)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화엄

총정원 \_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미륵사. 051)404~4300  
총무원 \_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화 041)566-2277, 566-2278 전승 041)566-6141